

# “아이들의 놀이터 이름을 지어주세요”

### 전북교육청, 내달 5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접수... 총 시상금 100만원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청사 앞 잔디광장에 조성한 놀이터 명칭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놀이밥 60+ 프로젝트 정책의 상징적 공간으로 청사 앞 잔디광장에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며 꿈꿀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조성했다.

놀이터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놀 수 있는 '두루두루 함께하는 놀이터',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상상하며 즐길 수 있는 '이슬이슬하고 짜릿한 놀이터', 잔디광장의 자연물을 활용, 놀이시설을 최소화한 '자연연을 담은 놀이터'를 표방하고 있다.

놀이시설로는 그물놀이대, 미끄럼틀, 모래놀이 테이블, 안벽 및 줄오르기,

감각놀이대 등이 설치돼 있다.

명칭 공모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담아 낼 수 있는 이름을 지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모전 신청 게시판(<http://news.jbe.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창의성·적합성·전달력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하고, 각각 문화상문권 30만원·20만원·1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의 놀 권리와 어린이 놀이 공간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면서 “향후 모든 아이들을 위한 통합 놀이 공간과 휴게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청년 TLO 육성사업'을 통해 청년 TLO 연구원을 육성하고, 기술이전과 취·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미래의 Star 창업가 발굴에 발벗고 나서

### 전주대, 입학생 창업캠프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부안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열린 예비 입학생 및 재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인재전형 학생 대상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미래의 Star 창업가를 미리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창업특기생으로 입학한 '2019년 창업인재전형' 신입생과, 평소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기업가정신 강의, 팀빌딩 활동과 실습형 창업교육, 창업 토크콘서트, 창업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직접 창업아이템을 고안하여 발표해보는 창업경연을 펼쳤다.

팀별로 구상한 아이디어를 작성하여 발표한 결과, 3D프린터를 이용한 '부착식 기능성 안경 렌즈필름', '물인원 스마트레이블' 등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가 다수 출품됐다.

캠프에 참여한 컴퓨터공학과 이강일(19학번) 창업인재전형 신입생 학생은 "처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는 창업에 대해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역할분담이나 아이디어 설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창업지원단 주정아 단장은 "미래의 Star 창업가"로 성장 할 창업인재전형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발굴 할 수 있는 캠프였다"며 "청년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해 학생프로그램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2011년에 창업인재전형형을 도입하여 9년 연속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2개 학과 22명을 선발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학교가 21일 호원문화체육관에서 제33회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 “항상 겸손하며 솔선수범하는 사회의 리더가 되길”

### 호원대 전기 학위수여식 성료... 학사 학위자 1222명 배출 · 만학도 332명 졸업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1일 호원문화체육관에서 제33회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강희성 정은학원 이사장, 김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 서동완 부의장, 서동석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 학위자 총 1,222명을 배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전문학사 학위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시정 교수를 수상했으며, 학부과별 수석자로 간호학과 윤예슬 학생 외 29명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아동복지학과 김O환씨가 74세의 나이로 최고령 졸업생 타이틀을 얻었으며, 이외에도 332명의 만학도 졸업생이 배출됐다.

김O환씨는 “자녀들 뒷바라지에 미뒀던 학업을 늦게나마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학업을 응원해준 가족 및 동료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희성 총장은 훈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지식과 경험을 연마하는 최선의 노력 끝에 영광스런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겸손하며 솔선수범하는 사회의 리더가 되어 호원대학교를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호원대학교는 제33회 전기 학위수여식을 통해 ▲공학사 155명 ▲이학사 111명 ▲경영학사 72명 ▲사회복지학사 93명 ▲행정학사 9명 ▲법학사 18명 ▲경찰학사 5명 ▲소방행정학사 1명 ▲소방안전관리학사 39명 ▲미용예술학사 22명 ▲예술학사 132명 ▲체육학사 72명 ▲관광학사 84명 ▲교육학사 79명 ▲아동복지학사 50명 ▲응급구조학사 50명 ▲작업치료학사 27명 ▲간호학사 76명 ▲심화컴퓨터게임학사 10명 ▲물리치료학사 42명 ▲치위생학사 30명 ▲미술학사 27명 ▲언어치료학사 15명 ▲문학사 3명을 배출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은 3월 4일 11시 호원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재 적극 발굴

### 전북대 산학협력단, 정부 지원 '청년TLO 사업' 통해 연구원 육성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재영)이 '청년 TLO 육성사업'을 통해 청년 TLO 연구원을 육성하고, 기술이전과 취·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3년 간 34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학 실용성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맞춤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만 34세 미만 이공계 미취업 학·석사 졸업자 60명을 청년 TLO 연구원으로 채용한 전북대는 그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창업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에는 2박 3일간 전라북도의 청년 중소기업 등을 초청, 취·창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한 도내·외 기관 및 지역기업의 깊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현재에도 청년TLO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기업체 파견 근무나 채용 문의가 끊이지 않아 이

를 기반으로 청년TLO 활동을 통해 대학 보유기술의 민간이전과 취업을 적극 연계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15명이 취업한 것을 비롯해 특허 13건, 기술이전 계약체결 총 4건(총 232,680천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지역산업 기여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시행한 2S 전략으로 청년TLO 연구원들의 취업 및 창업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시에 배출,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재영 전북대 산학협력단장은 “대학 및 실용성 보유 기술 등에 대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매진하고 있는 청년 TLO 연구원이 이와 더불어 취·창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온다라 교양플라자' 강좌 실시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백진우)는 오는 3월부터 전주대 및 최명희 문학관에서 '온다라 교양플라자' 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수강생들이 문학, 역사, 사상, 영화 등 인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초 지식 습득과 교양 함양을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강좌는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전주대 진리관에서 실시

되며, 최명희 문학관 및 한옥마을 일대에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3월 11일까지며 전주대 재학생을 비롯해 전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문의는 전주대학교 HK+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 ~ 3, [ondara@jj.ac.kr](mailto:ondara@jj.ac.kr))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